

2022년 6월 28일 (화)

News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보증 연장 허용

아시아경제

금융위원회,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전세대출 보증 연장 가능하다고 발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일환
기존에는 시가 9억원 이하 비고가주택 보유자가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면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불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환되어도 퇴거시까지 갹신 허용

우리은행 지점서 8000억 외환거래...금감원 검사 돌입

동아일보

우리은행, 서울 한 지점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약 8,000억원이 외환거래를 통해 복수의 법인이 또 다른 법인들로 송금된 사실이 발견
이번 외환거래가 금액 및 거래 대상 등을 볼 때 통상적인 수준 벗어나... 다만 사측은 거래 절차상 문제 없었다고 밝혀... 지난 614억원 횡령 사건과는 무관

금융채 금리 들쭉날쭉...금리 압박도 무용지물

서울경제

5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 4.70~6.40% 기록... 상하단이 각각 0.04%p, 0.115%p 하락... 혼합형은 모두 6% 중반대로 하락
고정형 금리 기준인 금융채 5년물(AAA등급)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 국고채 금리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서 은행권 대출금리는 다시 오름세 탈 가능성 높아...

마이데이터 사설인증 시장 '네이버 싹쓸이'...44개 기업 중 39개

전자신문

44개 본허가 사업자 중 39개사가 네이버 인증서 채택... 총 88.6% 점유... 사설인증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토스 등 7개 사업자가 공급 중
자체 인증서 보유하거나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를 자체 인증서로 바꿔 사용하는 은행 제외하면 10개 사업자 중 5개 은행이 네이버 채택... 올 하반기 카카오톡인증서 추가 가능

"비슷한 금리에 대출한도 넉넉"...보험업계, 40년 만기 주담대 출시 잇달아

아시아투데이

올 1분기 기준 생·손보 부동산담보대출금액 총 79조 3,92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9,499억원 증가... 주담대 증가세는 가파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
다음달 중 보험업계 전반에 만기 늘린 주담대 상품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 7월 DSR 규제 강화 앞두고 원리금 상환액 부담 줄이겠다는 취지

증시 직격탄에 보험마저 흔들...변액보험 '100조원' 붕괴

뉴스핌

변액보험 순자산, 24일 기준 98조 2,500억원으로 집계...작년말 대비 13조 9,100억원 감소... 국내 증시의 연일 급락으로 순자산 100조원대 무너져...
순자산이 감소하면 가입자가 돌려받을 보험금도 감소... 변액보험 신규 가입자도 줄어들어... 올 1분기 변액보험 초회보험료 4,81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분의 1토막

미래에셋증권, 씨티은행 퇴직연금 유치 1위

한국경제TV

지난 4월까지 퇴직절차 마무리된 씨티은행 퇴직자들의 1차 환급금이 선택한 금융사로 이체될 예정...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많은 자금 유치
증권으로 이동한 약 9천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래에셋증권 차지... 한국투자증권이 2천억원 넘게 유치하며 2위

기관·외국인 창구에서 던지는 CFD 반대매매에 개미만 '몸살'

뉴스1

최근 급락장에서 발생한 CFD 반대매매가 하락폭을 더 키워... 특히 증권사마다 시간이 다르고 시장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신용융자 반대매매보다 타격이 커...
매매동향은 외국인 및 기관으로 잡혀... CFD 자금이 어느 종목에 얼마나 쌓여있는지는 알 수 없어... CFD 반대매매 리스크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 커져...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